

2012년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

「또다른 세상」

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



2012. 8. 14 ~ 2013. 2. 17

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
Geomdan Prehistory Museum

후기 구석기인들의 매장

-죽음을 기리며 장식을 해주었어요.

'구석기시대의 왕자'라 불리는 '아렌느 깡디드' 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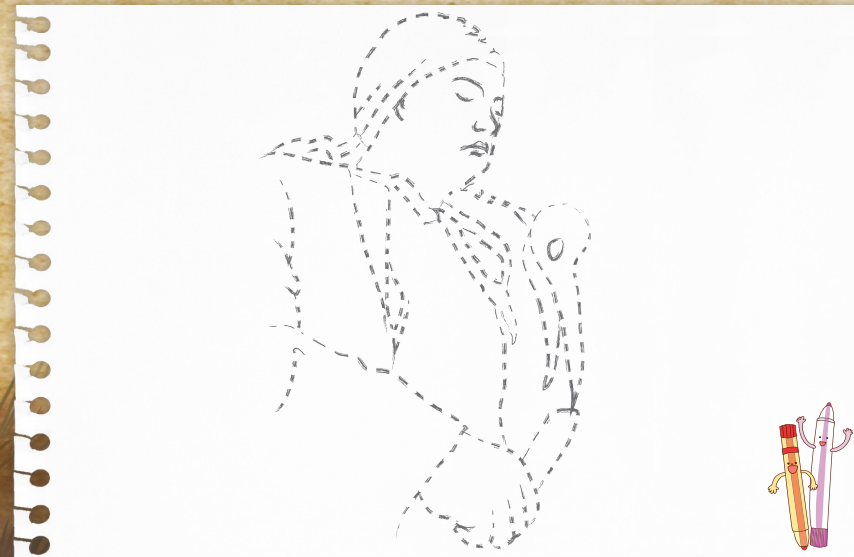
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었을까요?

전시실에 있는 매장 인골과 아래의 힌트 그림을 보며 찾아보세요~

(조개목걸이, 둥날, 치레걸이용 굵막대)



그리고 아래에서 구석기시대의 왕자를 따라 그린 후 예쁘게 꾸며보세요.



스탬프를 찍어보아요.



특별전에서 전시하고 있는 구석기시대의 매장 인골들이 발견된 위치예요.

위치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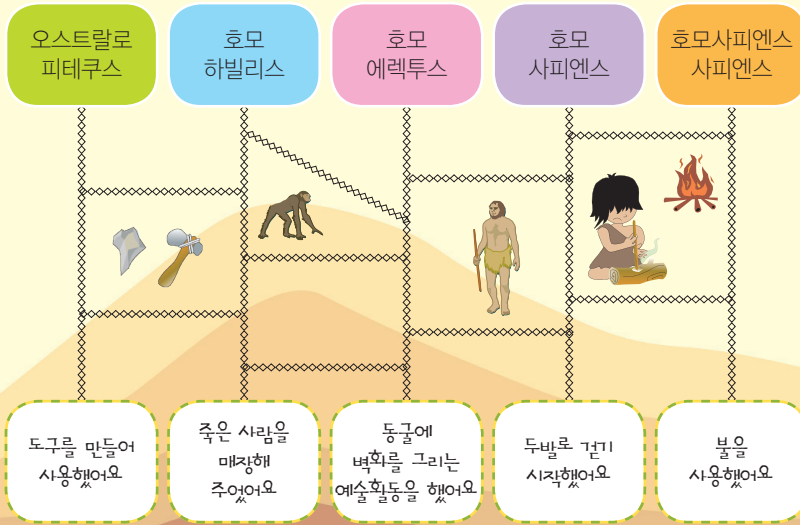
2012년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

또 다른 세상

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

우리 인류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?

우리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호모하빌리스 → 호모에렉투스 → 호모사피엔스 →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 단계로 진화·발전했습니다. 각 단계마다 인류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?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, 각 단계에 맞는 특징을 알아볼 수 있어요~



어린이용 활동지

검단선사박물관 2012 특별전

어린이들의 전시관람을 위한 활동지입니다. 전시실에서 함께 활용하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관람이 될 거예요!

전시실 관람이 끝난 후 활동지를 접으면, 연필, 풀, 자 등 다양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예쁜 상자가 만들어집니다.^^

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
Geomdan Prehistory Museum



특별전에서 전시하고 있는 구석기시대의 매장 인골들이에요

전시실에서 찾아 설명과 함께 살펴보세요!
그리고 활동지 앞면에는 각 매장 인골들이 발견된 곳을 체크한 지도가 있어요. 위치에 맞게 스티커도 붙여보아요^^



← 카프제 유적
발견장소 : 이스라엘 나자레
세계에서 가장 오래된, 중기 구석기의 유일한 합장 형태의 인골입니다.

← 라 샤펬 오생 유적 ←
발견장소 : 프랑스 라 샤펬 오생
치아가 거의 없고, 관절염을 심하게 앓던 60세 가량의 남자예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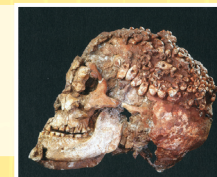


← 생 세제르 유적
발견장소 : 프랑스 생 세제르
네안데르탈인의 화석으로, 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유럽에서 호모 사피엔스사피엔스와 함께 공존하며 살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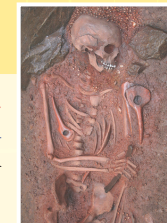
← 카비용 동굴 유적 ←
발견장소 : 발지 로시 동굴군(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)
성인 여자로, 머리를 자세히 보면 조가비와 사슴 송곳니로 장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


← 그로프 데 장팡 유적
발견장소 : 발지 로시 동굴군(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)
성인 여자와 청소년 남자가 함께 매장되었어요.



← 아렌느 깡디드 유적 ←
발견장소 : 이탈리아 리구리아지방
화려한 머리장식과 목걸이 등의 장신구들로 치장을 하고 있어 구석기시대의 왕자로 불려요.



중기 구석기인들의 매장

- 죽음을 슬퍼하기 시작했어요.

인류는 중기 구석기부터 죽음에 대해 알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시기부터 죽은 사람을 묻어주었어요. 이 때 여러 물건들을 인골과 함께 넣어주었습니다. 어떠한 물건들을 넣었을까요? 그리고 현재에 사는 우리들 이라면 무엇을 넣을까요?

구석기인들은 무엇을 넣었을까요?

또 다른 세상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

우리 인류가 죽음에 대해 알기 시작한 것은 중기 구석기시대부터예요. 이때부터 죽은 이를 동물뼈나 석기 등과 함께 묻어주는 매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이후에는 이들을 위해 조가비 등 여러 물건들을 이용하여 치장을 해주기도 하였답니다.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는 이러한 구석기시대의 매장 인골들을 전시하고 있어요. 이번 전시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진화·발전했으며, 구석기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.



전시실 안에서 지켜줘야 할 약속

- 첫번째 약속
유물을 만지지 않아요.
- 두번째 약속
전시실 안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요.
- 세번째 약속
음식물을 먹지 않아요.

현재에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넣을까요?